

# 대구광역시

## 주낙영, APEC 유치 넘어 교육발전특구 지정 올인

100억 재정 지원금  
교육발전특구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  
명품교육도시 건설



경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도전에 나선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주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이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

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라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골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는 3년 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시범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이점까지 갖게 된다.

시는 새달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는 지역 내 4년제 대학 3곳 등 대학 4곳과 국제통상 마이스터·디자인·보건고 등 다양한 특성화·특목고교가 있는 점을 활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교육청, 대학, 고교, 기업, 교육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고 경주만의 특성화된 교육 개혁안을 완성한다.

부모, 학생, 교사,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들어 맞춤형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한다.

향후 본격화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국가산단 등 혁신원자력산업 및 지역 대표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한 교육모델 발굴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윤용찬 기자



영덕 송이산을 지켜라 영덕에 2024 초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한창이다. 송이산 지키기 위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막는데 총력전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군 송이산 및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총력을 다해 피해확산을 방지, 건강한 산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장면 (사진=영덕군제공 관련기사 4면)



## 대구시,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추진

기관별 청소상황실·기동반  
쓰레기관련 민원 적극대응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은 △껌데기는 가라, 추석 선물은 포장 쓰레기가 적은 것으로! △명절 장보기는 장바구니와 함께 계획적인 장보기 △맛있는 명절 음식, 먹을 만큼만 적당히! △성묘 갈 때 일회용품은 NO, 다회용품 사용하기 △명절 쓰레기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분리배출 4원칙 지키기) 등이다.

연휴 전에는 주요 관문지와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 40개소를 중점 정결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공(公共) 중심의 대청소를 한다.

총 42개반, 151명을 투입, 유동인구 밀집 지역, 단독 주택·원룸 밀집 지역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으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만든다.

연휴 기간 2월10일 설 당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연휴 마지막 날(2월12일)에는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운영시간을 1시간 특별 연장해 적체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쓰레기 미수거일’에도 연휴 기간 운영되는 기관별 청소상황실·기동반(325명)은 쓰레기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설 연휴가 끝난 13일에는 구·군별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연휴 기간 동안 적체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 시가지 마무리 집결 청소로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도운다.

조미경 기자

##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협의

대구교도소 터 방치하면  
범죄 발생 우려 너무 커  
시민심터 조성계획 밝혀  
달성군 문화시설 태부족  
예술허브조성 절대 필요

문체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예전부터 뮤지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지역이 국립뮤지컬컴플렉스를 건립하기 적절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물론 대구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옛 대구교도소 터를 방치하면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며 시민심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예술허브 조성 이전에 우선 옛 대구교도소 터 10만 5560㎡(3만5000여평)에 산책로와 다목적 잔디마당, 공연장을 만든다.

문제는 달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법무부 소유의 터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야 한다는 데 있다.

기재부로 넘어가더라도 부지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수십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군은 대구교도소 내부 개발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도소 외부 정비하는 공사에 나선다.

달성군 관계자는 “외부 정비 공사가 봄에 시작될 것”이라며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여는 기자

### 단체장 일정



윤석준 동구청장은 30일 오후 늦게까지 평화동서시장에서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다.



박현준 부화군수는 30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농촌지도자봉군연합회 임원추진사업’에 참석한다.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외씨부지길, 영양도리길  
**물** 영양호수, 영양호수공원  
**빛** 영양호수, 영양호수공원  
**맛** 영양호수, 영양호수공원  
**심** 영양호수, 영양호수공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KOREA, KOREA, KOREA

영양의 자연, 일출산, 선화위와 남이로, 삼계계, 수하계, 본신계, 천막공원, 죽림수원, 외씨부지길  
영양의 역사, 공숙대리방, 사서지, 두들아들, 주심마을, 강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죽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빙하문화공원, 반포밭이천공원,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업전시관, 일출산자연생태공원, 영양용해발전단지, 용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자연휴양림, 본재수목사생태전시관



홍준표 “검사, 정치에 맞들이면 사법적 정의 사라져”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검사가 정치에 맞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 일부

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홍 시장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죄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가 셀러리맨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 2024 복지사각지대 ZERO 원년 선포

사회보장 대폭 확대  
복지사각지대 없애

경북도가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원년을 선포했다.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모은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했다.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됐다.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자활근로사업비 편성 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으로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와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 및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한다.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단을 신설,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아·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짜여진 마을기동대를 편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 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유·초등 이음 교육 홍보영상 제작 보급

학부모 유아교육 이해 높여 교육 놀이문화 긍정적 확산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초등 이음 교육 홍보영상을 제작·보급했다. 홍보영상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적 놀이문화의 긍정적 확산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놀이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와 유아기 전환기 단절 없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아의 배움과 삶을 잇는다’는 이음 교육 홍보영상으로 구성됐다. 이음 교육 홍보영상은 △이음 교육 △이음 교육과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생활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유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기획·참여 제작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자막 영상과 수어도 함께 지원한다. 홍보영상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깔맞춤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유아교육 홍보영상에 경북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9급공무원 경쟁률 32년만에 ‘최저’... 인기 하락

시급 1만2000원 수준 다소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택하면 9급초임 수준과 비슷한 월급 250만8000원 받을수있다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던 공무원이 ‘잘과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8~22일 4749명을 뽑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0만3597명이 지원하며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1년 93.1대 1까지 치솟은 이후 경쟁률이 하락해 1992년 19.2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30대 1 아래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9급 경쟁률의 하락세는 열악한 처우에 수많은 약성 민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

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도 지원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을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을 2.5%에 3.5% 추가 인상을 더해 6% 인상했다. 지난해 연봉 2831만원(월평균 236만원)보다 179만원 오른 수준이지만, 경쟁률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최저시급 9860원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월급 206만740원)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민원과 책임, 인간관계 등 신경 쓸 게 많다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시급 1만2000원 수준의 다소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택하면 9급 초임 수준과 비슷한 월급 25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에 따르면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이 펼쳐진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상향했지만, 이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추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80%대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83.1%까지 내리면서 관련 통계 집계 시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9급 지원자 평균 연령도 올해 처음 30세를 넘긴 30.4세를 기록했다. 20대 이하가 54%로 많았지만, 2022년 60.9%, 2023년 57.3%로 지원자는 감소했다. 반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이 처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수단 등 개선으로 나아진 공무원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10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달성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농협,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50억원씩 나

뉘 운영한다. 사업장 주수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 기업별로 최대 7000만원이다. 군은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육청, 대구미래학교 성장 머리 맞대

올해 신규 6교 지정 80개 대구미래학교 미래형 학교 모델로 대구교육청은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024학년도 신규 대구미래학교 6교(초3교, 중3교)를 지정, 올해 총 80교(초43교, 중37교)의 미래학교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학생중심 탐구수업을 한다. 무엇보다 지속·체계적 관리와 환류를 통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한다.

내실 있는 대구미래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교육청은 29일 초등 대구미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초등 대구미래학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 대구미래학교 1년차 운영교인 명덕초와 금포초의 미래학교 운영 사례를 나눴다. ‘지산다움’ 교육과정으로 탐구하는 학생, 성장하는 교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지산초, 전교생의 60% 이상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학생 주도형 글로벌 맞춤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신당초 등 2024년 성과평가 재지정교 3개교(신당·지산·효동초)의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황태용 기자

군위군, 산불예방 계몽운동

군위군이 산불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지난 27일 아미산 등산로에서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15명과 함께 산불방지 현수막을 게양하고, 산불예방 홍보리플렛을 배부했다. 계몽운동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등산객 및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산불예방을 홍보, 대구시를 중심으로 9개 구·군이 동시에 산불예방 홍보를 했다. 소방면 산불감시원들도 환경 정화 운동을 했다. 지난 28일 오전 소방면 산불감시원 12명은 위성3리 홍제암에서 북성리까지 하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소방면 산불감시원은 매 주 토요일 오전 중으로 구간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 외동 태심관합기도, 새해맞이 따뜻한 기부

경주시 외동읍 소재 태심관합기도는 지난 26일 소속원생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휴지, 물티슈 등 생필품 꾸러미 70여 개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읍장 박준

호)에 전달했다. 기탁된 물품은 태심관합기도장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 기부한 것으로 매년 연말연시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

해 꾸준히 사랑의 기부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소재철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작은 정성을 모았으며,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온정이 이웃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설맞이 서민경제 안정 주낙영의 민생 살리기

## 설 명절 물가 안정 총력전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경주시가 설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전이다.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새달 1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최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증가, 비상방역체계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명절을 맞아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품목 살피고,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 설맞이 물가안정 주력

경주시가 민관 협업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시는 △16개 관리품목 중점관리 △물가책임관 지도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 상향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 매 등을 중점 추진해 생활 물가잡기에 나선다.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은 제수용품 등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한다.

읍면동 물가책임관은 대상품목 가격동향을 파악,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30~2월8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이 20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계몽운동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 속 필수카드인 경주페이는 2월 한 달 동안 캐시백 혜택 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사용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매월마다 동일하다.

지류형(5%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150만원으로, 모바일·카드형(1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150만→200만원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는 △농특산물 10~20% 할인 △경주전년한 우 최대 30% 할인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 최대 30%) 행사도 한다.

### ■ 비상방역체계 가동

비상방역체계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새달 18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4월 발생한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된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이지만,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일어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13일 주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간인 2020년 3주차(353명)를 넘어섰다.

시는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을 관리하고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 출동·대응한다.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물 충분히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 기침예절 실천 등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우리 모두 손잡고 아동친화도시 경주 만들어요”

###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정책 의견 제시 등 아동권리보호 적극앞장

경주시는 지난 27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아동참여위원 30명을 비롯한 아동권리지킴이와 아동참여지원단(멘토) 6명 등이 참석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8월 제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4기째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3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년간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의 아동을 대표해 아동권리 홍보 계몽운동, 아동 관련 행사 참여,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참정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

지난해 1년 동안 활동한 3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제1회 아동권리 골든벨, 경주시 아동·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대회 참가 및 아동권리 책자 제작에 참여했다.

올해 ‘위드키즈존 지정사업’에 앞서 황리단

길에서 ‘노키즈존은 슬퍼요, 온키즈존은 좋아요’라는 아동권리 계몽운동을 하는 등 아동권리지킴이인 이지희 동국대 교수의 지도로 월 2회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올해 상반기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새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5개월간 이다. 아동NGO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강사와 위촉시민강사가 과연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 대기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경주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종류와 용량에 따라 9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총 19억 5천만 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 및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설치, 연료 전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새달 29일까지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경주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황리 종료

### 농민들에게 1년 농사 계획 수립

경주시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개 과정, 16

회에 걸쳐 지난 5~26일까지 교육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동 순회 교육으로 계획 인원(1080명) 대비 1552명이 참석, 144%의 놀라운 출석률을 보였다.

벼와 고추 재배기술 교육을 읍면별로 13회에 걸쳐 실시했다. 특화 품목으로 발작물, 사인머스

켓, 농촌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농업인회관에서 각 1회 진행했다. 고품질 재배 기술과 품종 선택 방법 및 병해충, 바이러스 예방 방법 등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진행했다. 경주시는 연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소개, 농민들에게 1년 농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 한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 제공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울릉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취약계층 세대 명절음식 전달

울릉군은 29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추진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시·울릉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농기주부봉사단, JBC봉사단 등 관내 봉사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환경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로코자 지난해 연말정부차원의 온기나눔범국민 릴레이에서 시작했으며 경북도에서는 휴한기인 1~2월 중 시군별로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다. 정윤환 기자

울진농업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27년까지 약 655억원 투입예정'

울진군은 농촌인구 노령화 극복, 농가소득 증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울진농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으로 △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지원단지 △유기농 에듀캠프 △경춘순환 들녘특구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과 △대형저온저장고 및 저온유통센터 건립 등을 진행한다. 이정수 기자



영덕,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혈액수급 위기 단계현행 실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난 26일 영덕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단계현행을 실시했다.

이번 단계현행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혈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우려하여 조금이나마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됐다.

참여인원은 영덕군청, 영덕지청, 주민 등 총 63명으로 참여자들에게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체크와 함께 헌혈증서 및 전혈기납품을 증명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 '가족·연인과 함께 하는 설렘 가득 눈 축제' [雪]

2월1~3일까지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 울릉도 겨울낭만 즐길 알찬 프로그램 마련

울릉도의 눈꽃 축제가 돌아왔다. 울릉군축제위원회는 눈꽃 축제에 앞서 눈썰매장을 임시로 개장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북면 나



리분지는 눈으로 덮힌 썰매장은 천연 눈을 활용한 190m 길이의 슬로프로 구성돼 행사장을 찾는 이들에게 나리분지의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울릉도 눈 축제만의 짜릿함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눈꽃 축제 본 행사는 새달1일부터 3일까지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에서 개최된다.

'가족·연인과 함께 하는 설[雪]렘 가득 눈 체험'을 주제로 진행되는 울릉도 눈 축제는 울릉의 눈과 겨울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

사와 전시행사, 개막행사,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행사에는 '서울패밀리위일칭', '해바라기밴드' 울릉도 홍보대사 '정광태', '백봉기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신나는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또 튜브 눈썰매 타기, 눈 스키 체험, 겨울놀이 체험(연날리기, 제기차기), 설피신고 달리기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그 밖에도 대형 얼음조각 전시와 캐릭터 조형물

전시 등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으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먹거리장터와 플라마켓, 울릉도 특산물인 고로쇠 홍보관도 열릴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 울릉도 눈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울릉도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예년보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방문해 울릉도를 맘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포항,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265억 원 투입

이강덕 시장 "청정에너지 전환 통해 포항 중심 청정에너지 르네상스 박차"

포항시가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65억 원을 투입한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65억) △수소도시 조성(80억) △수소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10억)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25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1.3억) △에너지 효율화 지원(4.5억)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23억) △LPG 배관망 구축(45.7억)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각각 수소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지 조성과 포스코에서 블루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6.7km 수소 배관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지역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기술 실증화 지원으로 기업의 시장진출 속도를 높이는 등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해 최종 선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 정창명 기자

이에 따라 올해 풍황계측기 설치, 풍황자원 수집, 수송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어업인 및 주민) 구성, 수산업 공존 및 주민 이익공유모델을 확립해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내 주택, 공공·산업건물 등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수소특화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지역특화 신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포항시는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 공사를 하고 공사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산업을 상생 발전시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항 중심의 청정에너지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울진군 손병복 號 갑진년에도 순항 중

2024 K-브랜드 미래혁신 도시 부문 수상  
2023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도시의 미래혁신 위한 공헌 인정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손병복 울진군수가 갑진년 새해부터 상복이 터졌다. 울진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로 공을 인정받아 연이은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도와 노력 그리고 순병복 군수의 리더십 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240여 개의 지자체 중 2곳만을 선정하는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과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에서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 운영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연이어 지난 24일에는 '2024 K-브랜드 어워즈' 미래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해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2024 K-브랜드 어워즈'는 탄소중립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울진군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군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성공,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발전과 더불어 탄소중립시대 수소 생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조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울진군의 연이은 수상은 교통여건, 인적자원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기에 그 의미가 크다.

울진군은 앞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추진 △울진관광 1000만 시대 준비 △농·어업과 산림의 대전환 △사람 중심의 복지제도 마련 △군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행정 등을 추진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Background image of a city skyline)



경북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24년 강영석 상주시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26일 상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도현 부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박미경 상주시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전담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십자 모금의 일환으로 재해 및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공의료 등의 봉사활동과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적십자 봉사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며 기부문화가 날마다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의성, 설맞이 의성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의성군은 설맞이 의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기간은 상시 6% 할인에 월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40만 원, 카드 3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이다. 연간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 400만 원, 카드 4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다. 의성군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10% 특별할인에 지류와 모바일 합쳐 50만 원, 카드 50만 원 총 100만 원으로 구매 한도 금액도 상당히 설맞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고 아울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기 불황으로 설 대목을 예전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의성군청출장소 외 관내 34개 금융기관과 스마트 앱(그리고,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상주읍성, 국가유산 가치 제고·복원사업에 탄력

(尙州邑城)

상주 최초 읍성 성벽 구조, 배수로 확인 26일,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발굴조사

상주시는 지난 26일 상주읍성 정밀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하고 조사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봉동 9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소로(1-2) 개설부지 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상주읍성의 성벽, 해자, 배수로, 배수시설 등의 부속시설과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가 확인됐다. 문헌기록 속의 상주읍성은 1381년(고려 우왕 7년)에 축성을 시작해 1385년(고려 우왕 11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읍성은 평지성으로서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통해 동-서방향 약 520m, 남-북방향 440m, 전체 둘레는 약 1700m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재)금오문화재연구원(원장 한도식)에 따르면, 상주읍성의 성벽은 현 지표면에서 약 10~50cm 아래에서 확인됐고 일체의 읍성해설 계획 아래 지상의 성벽은 철거됐다. 성벽의 기저부는 유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된 성벽의 규모는 길이 20.8m, 너비 2.3m,

높이 0.95m이며, 내탁부의 범위는 4.3m다. 성벽(외벽)의 축조방법은 기반층을 'ㄴ'자형으로 굴착해 10~20cm의 정지층을 마련하고 상부에 지대석을 일렬선상으로 평직화한 후에 면석을 들여쌓기한 방식으로 축조됐다. 성벽의 뒷부분은 흙을 쌓아 올려 성벽을 받치는 내탁방식으로서 조선시대 전기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자(孩子)는 성벽에서 동쪽방향으로 약 13m 가량 이격돼 성벽과 평행하게 축조됐다. 해자의 내부에는 현대의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해자의 벽석과 기저부를 파괴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의 규모는 길이 20.8m, 너비 4m, 깊이 0.9m이다. 해자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배수시설 1호, 2호와 연결돼 있다. 상주읍성은 성의 내부에서 발생한 유수 및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다수의 배수로를 축조했고 성의 외벽에는 따로 암거(暗渠)식의 수구(水口)도 확인됐다. 읍성의 내부에서 해자까지 연결된 배수로의 길이만 54m에 달한다. 그 중에서 해자를 통해 유입된 유수를 병선천이 위치한 동쪽으로 배출하기 위해 해자의 진행방향

과 직교하는 외부배수로도 따로 마련했다. 외부배수로의 내부에는 배수로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목주열이 확인되었고 목주열은 배수로의 벽면을 보호 및 붕괴방지를 위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됐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규모, 축조방법, 수리체계 등이 밝혀지면서 상주읍성은 철저한 도시계획 아래 축조됐으며 읍성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상주시가 고대의 대읍(大邑)으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주읍성과 주변시설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상주시역 방리제(防里制)\*' 추정구획도상에서 동-서방향의 추정선과 일치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방리도로도 함께 확인되면서 상주읍성 뿐만 아니라 신라 통일기 지방도시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읍성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제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읍성 복원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읍(大邑) 상주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시 상주를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연구기관과 협업... 반도체 초격차 주도

경북도-출연연구기관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

구미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반도체 관련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북도 관계자, 출연 연구기관 7개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개발) 반도체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발굴·개발·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반도체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과 R&D 전문인력 교류 등 인력교류 체계 강화 △(인프라 운영) 반도체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운영 및 자문 △(행·재정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 공동

기술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출연 연구기관과의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남시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네트워크 데이 및 24일부터 26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31회 한국반도체 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고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은진 기자

구미시, 설 명절 식품안전관리 강화

구미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구미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명절 성수 식품(떡, 한과, 두부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한다. △조리장과 객석 정결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냉동·냉장 시설 적정 사용 여부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식품 사고 대응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휴 기간 식중독 대응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식품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차단에 나선다. 시민과 영업자들이 대상으로 식중독 주의 정보, 제수용 식품 보관법 등을 누리집과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정겨운 설 명절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요즘과같이 추운 날씨에도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주)우진산전 김천공장 전기버스 완성차 생산... 3월 본격 가동

김천 미래 먹거리 책임질 큰 축으로 기대

(주)우진산전이 김천에 첫 전기버스 전용 생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에 위치한 (주)우진산전 철도차량과 전기버스 생산 전문 중견기업이다. (주)우진산전은 1974년 회사 설립 이후 철도차량 전장품 제작에 전념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 품질 향상으로 외국에 의존하여 오던 전동차와 전기기관차의 핵심 전장품을 국산화했다. 이로써 국내 철도차량 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연

매출 5500억의 유망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전기철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도시형 전기버스 분야에 진출해 많은 기관과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주)우진산전 김천공장은 경북도내 최초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부지면적 7만7166㎡(약 2만3000평) 규모에 연간 약 1500대 이상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 김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우진산전은 김천시와 2022년 4월 투자약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023년 3월에 착공해 2025년까지 약 470억을 김천공장에 투자해

80~10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 시험가동과 함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 수익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천시는 이번 (주)우진산전 김천공장 가동으로 전기버스 완성차 생산거점 확보해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분양 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준공된 튜닝안전기술원과 현재 조성 중인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과 더불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김천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추구

신속 정확한 사회복지 통합 조사



김천시는 지난 26일 사회복지장급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사회복지장급 통합 조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2024년 통합 조사, 관리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장급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7만6300여 명 대상자 중 보장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수급자와 동일 가구 내

가구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 계획에 따라, 신청 조사와 월별, 반기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등 공적 자료와 140여 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확인 조사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하 복지기획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의하면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등 다방면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연구기관과 협업... 반도체 초격차 주도

경북도-출연연구기관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

구미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반도체 관련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북도 관계자, 출연 연구기관 7개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개발) 반도체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발굴·개발·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반도체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과 R&D 전문인력 교류 등 인력교류 체계 강화 △(인프라 운영) 반도체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

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운영 및 자문 △(행·재정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 공동 기술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출연 연구기관과의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남시에서 열린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네트워크 데이 및 24일부터 26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31회 한국반도체 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고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은진 기자

###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30일 옥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30일 오전 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읍면동 민생담방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148아트스퀘어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부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3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농촌지도자 봉화군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30일 '2024년 군민과 대화의 날' 행사를 주왕산면(오전), 청송읍(오후)을 찾아 군민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



###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산림조합 등 1000만원

지난 24일 청송군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가가 500만원씩 1000만원의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청송군산림조합은 2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조승래 조합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송발전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 재대구 영양군 향우회 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재대구영양군향우회는 지난 2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을 위해 향우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으며, 모금액 전액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김문일 향우회장은 "작은 성의라도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작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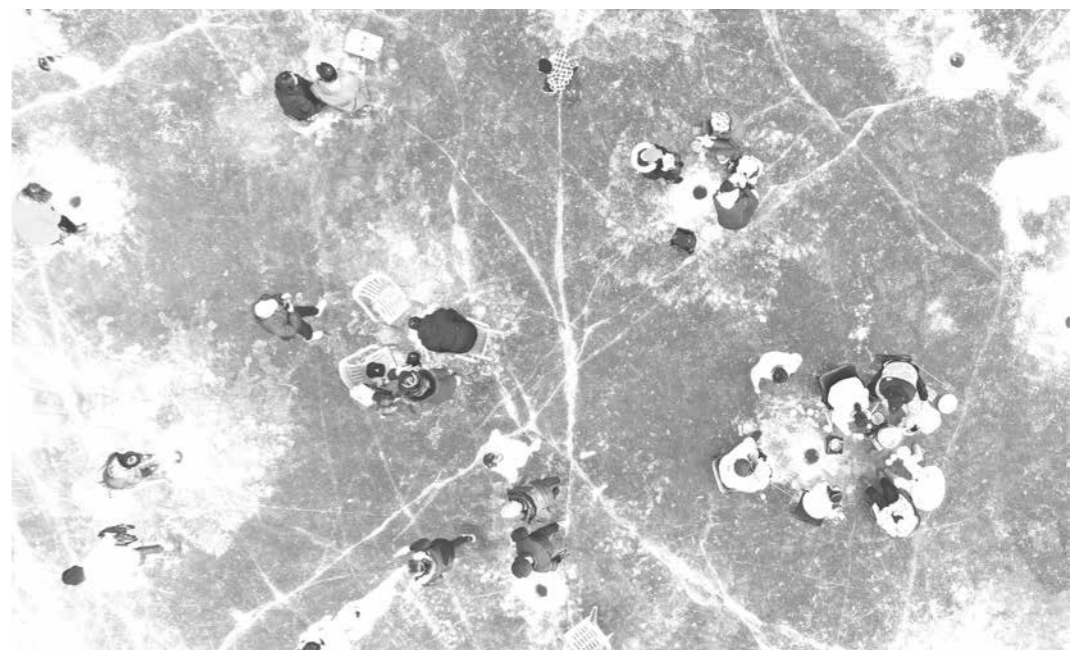


## 영양 뽕뽕 겨울축제, 다음 겨울에 또 만나요

###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장 값진 추억 남긴 체험여행

'제1회 영양 뽕뽕 겨울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열린 축제는 방문객 4만 명을 기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열린 축제는 방문객 4만 명을 기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내년의 더 큰 축제를 기약했다.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 공동 주최로 이번 축제는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다. 군은 뽕뽕 겨울축제를 준비하면서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축제로 남았다. 축제준비위원회는 매일 얼음 두께를 측정해 안정성을 검사하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는 우천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28일까지 축제기간을 연장



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반변천과 현리 앞산이 만든 자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빙어낚시, 얼음열차로 겨울을 만끽하고 땅 위에서는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 축제장을 찾은 김모씨(40, 여)는 "주변에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돼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뽕뽕 겨울축제 소문을 듣고 처음 영양을 방문했

다"라며 "축제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바가지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고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값진 추억을 남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영양 뽕뽕 겨울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음 겨울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안동형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총력

#### 선진화된 외식문화 정착 도모 표지판 부착 등 인센티브 제공

안동시는 선진화된 외식문화 정착과 외식업소 안심 이용 공간대 확장을 위하여 2024년부터 안동형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한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선진화된 외식문화의 개선을 위해 △테이블머리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 접시, 집게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종사자 마스크·위생모 착용 등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작된 안심식당은 현재 282개소가 운영 중이다.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부착, 위생 마스크 지급, 카카오톡 맵과 네이버에 정보 게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소개받고, 이를 통해 안동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올해 신규 안심식당 신청은 3월 시행할 예정이며, 안동시청 누리집에 지정 기준이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보건위생과(☎ 840-6622, 6625)로 하면 된다. 김남주 보건소장은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누구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식(食)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 영주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 가입 연령 0~17세로 조정 예산 4억2900만원으로 증액

영주시는 올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을 취득, 훈련 등의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 2 비율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가정위탁, 시설 입소 아동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디딤씨앗 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관련 예산을 지난해 1억6656만 원에서 올해 4억29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생 모집

#### 예천군, 내달 7일까지 접수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도 추진

예천군은 2월 7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2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총 10회에 걸쳐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시설 설치, 온실 복합 환경 관리, 작물 수경재배 기술 등 스마트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 8회, 스마트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선진지 견학 2회를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팜 도입 및 도입 예정 예천군 민을 우선 신청받고, 24명의 계획 인원 미달 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및 인근 지역 기술센터에서

추천받은 청년 농업인으로 추가 모집한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 보급 혁신스마트농업 기술 지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술 지원 능력을 인정받아 2021년부터 농림부 주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거침없이 나아가 수 있는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해, 스마트농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팀(☎ 650-6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욱 기자

### 소통으로 더 빛나는 청송 그린다

####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 오늘 주왕산면 등 방문

청송군은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의 완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오는 30일 주왕산면(오전)·청송읍(오후)을 시작으로, 31일(수) 현동면(오전)·부남면(오후), 2월 1일(목) 현서면(오전)·안덕면(오후), 2월 2일(금) 파천면(오전)·진보면(오후) 순으로 진행된다. "2024년 군민과 대화의 날"은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일상을 꼼꼼히 살피기 위한 값진 소통의 시간이 되고자 마

련한다. 군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234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 군수는 2024년 군정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주고받아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로당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인인 군민들이 바라는 청송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발판삼아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청송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봉화 도촌 양계협의회, 계란 1440만 기부

#### 작년 장학기금 500만원 전달 올해 850만원 상당 계란 나눔



봉화군 도촌 양계협의회는 지난 26일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꽃대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개최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계란 1440만(6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받은 계란은 행사 주최와 주관단체인 봉화군과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북

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도형 도촌 양계협의회장은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으로 농장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계란을 기부해주신 도촌 양계협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취약계층에 소중한 마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촌 양계단지는 7개 농장에서 141만수의 산란계 사육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산란계 밀집단지로서 하루 평균 120만 개의 계란이 생산되어 전국 2%가량을 담당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촌 양계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에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전상기 기자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영양보건소 심의위 개최

영양군은 지난 26일 '202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매년 이와 같이 연차별 결과 평가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장여진 보건소장 주재로 진행

됐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0명이 함께 참석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 수립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의 중장기 비전을 이어 2023년 결과 평가 및 2024년 추진 과제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다. 영양군은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건강영양'이라는 비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등 필수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주민 건강증진체계 구현 △분야 협력력을 통한 삶의 질 강화를 3대 추진전략 아래 10개의 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했다. 권윤동 기자

**꿈나무육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불)
-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